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.

발 의 자 : 한지아·서범수·이인선

진종오·장동혁·박정하

조은희·김형동·김승수

정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0조제6항 중 ‘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’는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(2018헌바524)을 함에 따라 같은 법 관련 규정이 개정(2023.7.11.)된 바 있으며,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아동·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·재판 과정

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 25조, 제26조, 제26조의2 및 제27조).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전단 중 “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·재판을 할 때 피해 아동·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”를 “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·재판할 때 피해아동·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2.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·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
3. 피해아동·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
4. 피해아동·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·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

고 충분히 설명할 것

5. 그 밖에 조사 및 심리·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·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④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성폭력범죄”는 “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”로, “피해자”는 “피해아동·청소년”으로 본다.

⑤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 준비절차,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피해자”는 “피해아동·청소년”으로 본다.

제2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, 인지적 발달 단계,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1. 조사 과정이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다는 사실

2.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이 증거로 사용될

수 있다는 사실

⑨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)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

1. 증거보전기일,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. 다만,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2.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. 다만, 촬영된 진술 및 영상물 촬영이 특별히 신빙(信憑)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.

가. 사망

나. 외국 거주

다. 신체적, 정신적 질병·장애

라. 소재불명

마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, 범행의 내용, 피해자의 나이, 심신의 상태,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,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”를 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형사소송법」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5조(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<u>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·재판을 할 때 피해아동·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</u> 조력을 위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성폭력범죄”는 “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”로, “피해자”는 “피해아동·청소년”으로 본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5조(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·재판할 때 피해아동·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후단 삭제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</u> 2. <u>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·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</u>

<u><신 설></u>	<u>할 것</u>
	<u>3. 피해아동·청소년이 피의자</u> <u>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</u> <u>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</u>
<u><신 설></u>	<u>4. 피해아동·청소년에게 조사</u> <u>및 심리·재판 과정에 대하여</u> <u>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</u>
<u><신 설></u>	<u>5. 그 밖에 조사 및 심리·재판</u> <u>과정에서 피해아동·청소년의</u> <u>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</u> <u>요한 조치를 할 것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u> <u>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의 수사</u> <u>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</u> <u>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</u> <u>한 특례법」 제36조부터 제39</u> <u>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</u> <u>“성폭력범죄”는 “아동·청소년</u> <u>대상 성범죄”로, “피해자”는</u> <u>“피해아동·청소년”으로 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u> <u>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</u> <u>한 공판준비절차, 증인신문 방</u> <u>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</u> <u>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</u> <u>한 특례법」 제40조의2 및 제4</u>

제26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

① (생략)

<신설>

② ~ ④ (생략)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

0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피해자”는 “피해아동·청소년”으로 본다.

제26조(영상물의 촬영·보존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, 인지적 발달 단계,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1. 조사 과정이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다는 사실

2.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

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⑦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⑦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⑨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
제26조의2(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별)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촬영된 영상물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.

1. 증거보전기일,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. 다만,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

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2.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. 다만, 촬영된 진술 및 영상물 촬영이 특별히 신빙(信憑)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.

가. 사망

나. 외국 거주

다. 신체적, 정신적 질병·장애

라. 소재불명

마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, 범행의 내용, 피해자의 나이, 심신의 상태,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,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

<p>제27조(증거보전의 특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<u>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제27조(증거보전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<u>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형사소송법」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.</u></p>
---	--